

## 이재명 “이낙연과 통합의 길 가려 노력...국민 눈높이 맞도록 최선”

### “내년 총선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반드시 이겨야”

### “할 수 있는 모든 길 열어 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이낙연 전 대표가 당 쇄신을 요구하며 신당 창당 결단 시점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대해 “통합의 길을 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호텔 화재를 진압한 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계획과 혁신안 구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 삶 매우 어렵게 해 야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 정치 행사로 야당 입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혁신과 통합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도 여러 말씀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또 만나서 통합의 길 가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있다.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9일께 공천의 전반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검증 단계부터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면서 인선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공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길 열어 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김수권기자

## “금값 한 돈에 40만원 넘었다”...더 오를까

### 한 돈 36만6000원...국내 소매 40만원 넘어 금리인하 기대 영향...신규 투자 신중해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국내외에서 오르고 있다. 국내 소매 기준으로는 한 돈(약 3.75g)에 40만원을 넘으면서 강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날 8만5940원으로 전일보다 0.21% 올랐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금 1돈(3.75g)은 36만6000원으로 전일보다 2000원 올랐던 22일 이후 보합세를 유지했다. 국내 소매 가격으로는 한 돈에 4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6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전일보다 0.70달러(0.03%) 상승한 온스당 2069.80달러에 마감했다.

금 가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 달러와 대체 관계에 있는 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

이달 초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하자 국내외 금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3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

장중 최고 거래 가격은 온스당 2136.36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금 가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금리 인하와 불확실성의 수혜자는 금”이라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진 것은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에 매력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금 가격 상단은 온스당 215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금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국내 금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했으나 최근 들어 거래가 주춤하다. 매수도 매도도 많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달 초보다 가격이 소폭 내리면서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금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신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은 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투자 메리트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10년간 국제 금 시세를 보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앞서 금에 투자했다면 지금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면기자



국토 최남단 해안 수색 정찰하는 31사단

갑진년(甲辰年)을 닮아 앞둔 27일 오후 전남 해남군 모 방파제에 위치한 수색 작전지 일대에서 육군 31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 망골소초 강병들이 해안선을 수색 정찰하고 있다.

## 광주 노로바이러스 확산...영유아 환자 71.4%

### 최근 4주간 검출률 2.2배 증가

최근 광주지역 영유아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4주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비교적 날씨가 포근했던 11월 둘째주(45주)와 셋째주(46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가 47주차 22.7%의 검출률을 시작

로, 12월 둘째주(50주)에는 50%로 4주간 2.2배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18.2%)와 비교해도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71.4%는 0~6세 영유아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에서 크게 유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외부 환경에서도 사흘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어패류·채소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되면 12

~48시간 안에 구토·설사 등 증상을 보이다 5일 이내 회복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는 탈수증상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경리 수인성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지만 예방 백신이 없어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게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등 소독제 처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손을 충분히 씻고 식재료는 섭씨 8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면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까지는 등원·등교·출근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동계휴가 및 신정 연휴로 다음호 1월 8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국수력원자력주

##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